



'절 돈' 잘쓰기 그렇게 어렵나?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종교생 3천명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부패정도를 물어보더니 93%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의외의 결과가 있었다. '가족과 친지의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3명중 1명의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그러 그렇다'는 답까지 합하면 50%에 달했다. 부패에 대한 높은 반감에도 불구하고, 친지의 부패는 용인할 수 있다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패불감증' 사찰도 해당 쓰임 공유돼야 진짜 '정재'

지난 연말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징계결과가 보도되었다. 기사 말미에 국고보조금 편취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범어사 전 재무국장 장의 징계가 유보되었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다. 출가 수행자가 문화재수리업체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국민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말이다. 배경을 확인해야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정론이 비등했던 탓이라 한다. 부끄럽게도 교단 사법부의 대응은 '친지들의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30%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화의 개선이 더 절대적이라는 것이었다. '투명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는 그것이 종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변화를 읽어 '투명화의 사회적 욕구'를 귀찮거나 피해 넘길 일로 인식하지 말고, 오히려 사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도들의 자긍심, 지역사회 이미지 고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필자의 진정한 바램은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에서 더 나아가 아낌없이 중생을 위해 다 주어버림으로써 투명화의 욕구를 단박에 뛰어넘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한 개신교 교회는 빌딩 한 층을 임대하여 쓰는 작은 교회인데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재정의 정운영의 절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100만원이 넘게 들어오는 돈은 많은 적든 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회향한다.

이렇게 남을 돕는 예산만 연간 수 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신도들이 자부심으로 푹푹 묻혀 더 많이 기부한다. 부끄럽게도 교단 사법부의 대응은 '친지들의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30%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서, 투명화가 저절로 실현되는 사찰' 그리하여 중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훑치는 사찰이아말로 불교가 지향해야 할 투명화의 모델이 아닐까? <정종기·제가연대 교단재정센터 운영위원>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교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종단발전 기틀 확고히 다져야"

수행·교육 정비...화합·자비 실천 총무원 중점사업 적극 지원 의지

2004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신년교시를 통해 언급한 네 가지 항목은 종단 주요 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불교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교시 내용이 총무원장 법전 스님이 제시한 올해 종단 중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법전 스님의 종단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교시 내용 가운데 수행과 교화를 강조한 첫 번째 항목은 통상적인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조계종이 벌이고 있는 수행 체계 정비작업을 원만히 완수하라는 의미도 띠고 있는 것으로 총무원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연구 작업 속에는 현재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돼 있는 강원을 대학원 형태의 전문 학원으로 전환하고 기본교육기관을 재설정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비 생활화와 어려운 이웃 구제를 통한 보살행 실천은 올해 조계종이 펼칠 '자비의 보람금 나누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들은 승가교육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총무원의 중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화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98년 별빈자 사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만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mwhan@buddhapia.com

불교 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 시상

장준희씨 최우수상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여연은) 인터넷포교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제1회 한국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 결과, 장준희씨의 '기슴 속에 든 불꽃'을 최우수상에 선정해 1월 9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관련 인터뷰 14면)

우수상에는 '어느 석수쟁이와 돌부처' (임근호)와 '환생' (홍대준)이 선정됐으며 금상 3작품, 가작 10작품 등 모두 16작품이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계에서는 처음 실시한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했으며, 총 42명이 작품을 냈다. 김두식 기자

동국학원 27일 이사회 이사장 선출 등 안건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제196회 이사회가 1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정관 개정(불교 병원 개원 등), 인기 2년의 새 정경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북한산 터널문제, '반대'는 계속된다

북한산 관동 저지 운동의 한 축이었던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월 6일 우이령 보존회 사무실에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국립공원 및 도로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해 환경부 차관 면담

이된다. 연석회의는 또한 1월 중 조계종 총무원장 법전 스님 면담을 추진해 스노무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및 정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연석회의를 배제한 채 진행된 데 대한 총무원장의 해명 △조계종 총무원과 국무조정실이 그 동안 진행해온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미비점 지적 △사찰

연석회의, "조직 재정비 후 정책 제안" 공사현장 감시, 보고서 발간 계획

을 추진하며, 도로 정책은 환경운동연합이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한 공사 현장 모니터링,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동 저지 운동 평가회, 보고서 발간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노선 강행 발표와 상관없이 국립공원 및 도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지를 밝히고 동시에 이번 사안을 반경교사로 삼아 제2의 북한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

의 환경과포 방지대책 제시 등 3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운동 국립공원 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며 "북한산 합의 당사자인 정부와 조계종이 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환경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전국 사미니 승가대 150명 졸업

사미니 승가대학 2월 초

지난 1월 3일 운문사를 시작으로 조계종 5개 사미니 승가대학(강원)이 일제히 졸업식을 갖고 모두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57년 첫 사미니 강원 졸업생을 내 가장 역사가 오래 된 공주 동화사 승가대학은 7일 36명을 졸업시켰으며,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64년 첫 졸업생 배출)은 가장 많은 54명이 3일 졸업했다. 수

원 봉영사 승가대학(75년 첫 졸업)과 서울 삼선승가대학(82년 첫 졸업)은 10일 각각 25명과 12명이, 김천 청암사(87년 첫 졸업) 승가대학은 6일 23명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조계종 4급 승가교시 응시 자격을 얻게 되며, 4급 승가교시를 통과하면 정식 스님인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4개 사미니 승가대학의 졸업식은 동안해 해제가 지난 뒤 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신흥사·은해사·고운사 우수 교구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은 2003년도 신도임원연수교육 우수 시행교구로 신흥사, 은해사, 고운사를 각각 선정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신도임원연수교육은 포교원(2000년) 중앙신도회(2001~2년)에서 주관해 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교구본사에서 주관해 실시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서울 불교 불교대학과 대전 백제불교문화대학을 우수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해 1월 10~11일 경주서 열린 신년포교전대회에서 시상했다. 권형진 기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14권 (책 1권 + CD 13권)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